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자 료</h1>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9.11.18.(월) 조간	배포	2019.11.15.(금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담 당 자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2833)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병 칠 부국장 (02-3145-8022)

제 목 :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향

- 최근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일자리 감소요인(비대면거래 · 업무 효율화 등)과 증가요인(디지털인재 수요 증가) 혼재
- 앞으로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척,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, 은퇴인력 활용 등 금융업 일자리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지난 '19.11.5. 금융발전심의회 정책·글로벌금융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'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 방향'을 논의하였음

※ 금융발전심의회 정책·글로벌금융 분과 회의 개요

- ▣ (일시/장소) '19.11.5.(화) 08:00 ~ 09:00 /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
- ▣ (주요 참석자) 이인호(위원장), 박창균, 송시강, 황형준, 김진규, 전병준, 강경훈 등 금융발전심의회 정책·글로벌금융 분과 위원

- 동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금융업 일자리 여건을 점검하고,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한편,

- 최근 진행하여 온 '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' 평가 계획*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

* ('19년 업무계획) "금융회사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"

('19.6월 보도자료) "금융권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도 측정"

- 참석자들은 금융업 일자리의 특성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, 단편적 대응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, 다양한 측면의 정책 대응방향을 제안하였음

※ 금발심 정책·글로벌금융 분과회의 주요 논의내용

- 최근 비대면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로 금융권 일자리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
- 금융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요인(비대면거래·업무효율화 등)과 증가요인(디지털인재 수요 증가)이 혼재되어 있으며,
 - 핀테크·인터넷전문은행·고령층 친화적 금융서비스 등 늘어나는 수요는 새로운 기회라고 평가
-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도 장려해야 하며, 대외원조(ODA)와 연계하여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
- 금융에서 IT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는 만큼, IT 마인드를 갖춘 금융전문가, 금융마인드를 갖춘 IT 전문가 인력이 충분히 확충될 필요
- 금융권 은퇴인력의 경험·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
- 금융권 일자리 평가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일자리 여건이 여의치 않은 만큼, 다른 분야의 새로운 금융수요 창출을 통한 일자리 대응이 바람직

- 금융위는 금번 논의결과 금융업계와 시장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업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

- 금융업계와의 간담회 등 기회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 공유·전파
- 금융업 일자리와 관련하여 좀 더 의미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의를 통해 일자리 통계*를 보완·확충

* 통계청 '고용동향', 금감원 '금융회사 임직원 통계', 금융연구원 '금융인력기초 통계 분석 및 수급전망' 등

- 금융업 일자리 문제는 정부 뿐 아니라 노사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, 노사정이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

* 예)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협의채널에서 논의 추진

※ [별첨]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 일자리 대응방안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□ (해외진출) 新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

주요 사례: ◇◇은행의 해외진출

- (개요) ◇◇은행은 '15년 이후 글로벌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,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영업망 확대 중
⇒ 글로벌 영업점('15년 200개→'19년 443개)이 증가함에 따라, 현지채용 뿐만 아니라 국내직원 파견('15년 146명→'19년 186명)인원도 증가

□ (재교육) 금융회사 임직원의 IT 및 핀테크 관련 교육 지원

주요 사례: ○○은행의 디지털 석사과정 운영

- (개요) ○○은행은 디지털 역량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교에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
□ (주요내용) 금융실무와 학문·이론을 결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, 금융 그룹 내 직원 중 등록자를 받아 석사학위 수여
⇒ '17.9월 개설 이후, 30명이 디지털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

(사례) '17년 석사과정 입학당시 영업점에 근무했던 과장 A와 차장 B는 석사 학위 취득 후 각각 글로벌디지털팀, 블록체인Lab 등 디지털관련 부서로 발령

□ (퇴직자) 퇴직자의 경험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

주요 사례 ①

- (개요) 신용회복위원회 "서민금융 종합상담역" 채용
□ (주요내용) 만55세 이상 15년 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과중 채무자 금융상담, 채무조정 전 단계의 종합신용상담 등 업무수행
⇒ '18년 7명에서 '19년 30명(+23명)으로 증원예정

주요 사례 ②

- (개요) 상호금융권 "컨설팅역" 채용
□ (주요내용) 10년이상 금융회사 경력자를 채용하여 상호금융 조합 건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취약부문 현장점검 및 내부통제 지도
⇒ '19년 현재 컨설팅역으로 136명 채용 중

※ 그 외에도 '채무조정 서비스업' 등이 도입될 경우, 금융권 은퇴자가 본인의 경험·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

- (창업기업) 청년 창업인프라 구축, 창업자금 지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요인이 될 수 있는 창업기업 지원 확대

주요 사례 ①: 혁신창업 플랫폼 FRONT 1

- (개요) 금융위는 혁신창업 플랫폼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FRONT 1 조성 추진 중(지상 20층 규모)
- (지원내용) 금융·멘토링 등을 종합지원(one-stop solution)하고,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



주요 사례 ②: D.Camp의 스타트업 지원

- (개요) 은행권이 출연(5,000억원)하여 설립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D.Camp를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 자금 및 창업공간 등 지원
- (성과) 핏핏(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려동물 건강진단), 집토스(전·월세 중개 플랫폼), 와그트레블(액티비티 예약 플랫폼) 등 우수 스타트업 발굴·지원
⇒ D.Camp 지원에 따라 대상 스타트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
* (핏핏) 4→40명, (집토스) 7→40명, (와그트레블) 7→100명

- (정책금융) 혁신·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·투자 활성화 추진

주요 사례 ①: 마켓컬리 (산업은행)

- (개요) 신선식품 배송·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컬리는 산업은행의 KDB 넥스트라운드 등을 통해 600억원 이상 투자 유치
⇒ 산업은행에서 최초 투자 당시('16년) 40명이었던 임직원수가 '19년 상반기 기준 280명으로 증가(3년여만에 7배 증가)

주요 사례 ②: 난닝구 (기업은행)

- (개요)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 1세대가 설립한 (주)엔라인("난닝구 닷컴")에 대해 기업은행이 투자(20억원)·융자(150억원) 등 지원
⇒ 기업은행에서 최초 투자했던 '17년(임직원 수 260명)에 비해 임직원 수가 320명으로 확대(2년만에 23% 이상 확대)

- (지역형 일자리) 제조업 불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-금융기관-勞使간 상생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

주요 사례

- ① (광주형 일자리)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('19.1.31)을 체결하고, 산은의 지분투자로 경형 SUV 생산공장(광주글로벌모터스) 설립
⇒ 직접고용 1천명(정규직) 및 간접고용 포함 7,600명 일자리 창출
- ② (대구형 일자리) 이래AMS 노사, 대구시, 산업·하나대구은행, 경사노위는 자동차 부품업체 이래AMS 지원에 합의
⇒ 270개 협력업체의 4만 3천여명 고용 안정 및 신규 일자리 1,200명 창출